

## 한글의 디자인 철학과 원리

Design philosophy and Principle of Hangeul

한재준 (han, jaejoon)

서울여자대학교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전공

“이 논문은 1999년도 서울여자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머리말

1. 『훈민정음』과 한글 창제의 배경
  - 1.1 훈민정음의 구성 체제와 내용의 간추림
  - 1.2 한글의 창제 동기와 목적
  - 1.3 한글 창제의 여러 기원설
2. 한글의 창제와 과정
  - 2.1 한글의 디자인 과정과 방법
  - 2.2 창제 당시 한글의 디자인 철학
3. 한글의 디자인 원리
  - 3.1 자모의 조형과 조합의 원리
  - 3.2 글자 조형의 원리 분석

맺음말

참고문헌

후주

(요약)

한글은 이미 세계적인 문자로 인정받고 있으나, 정작 그 자락을 실제적으로 보여줄 글자꼴에서는 체계성이 부족하고, 주제성 없는 변화의 연속이 오히려 시각문화 발전과 국가 정보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원인의 핵심이 한글의 창제 정신과 원리를 제대로 이어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이와 같은 전제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한글을 디자인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우수성을 체계적으로 밝히어,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거와 객관성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결과, 한글의 창제철학과 원리는 오늘의 시각으로 보아도 당대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적절한 디자인 철학을 품고 있으며, 합리적인 디자인 과정을 거쳤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오늘의 한글꼴의 문제는 전제한 바와 같이 창제 정신과 원리를 바탕에 두고 풀어야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 나아가, 한글의 창제는 민족과 국가를 초월한 원활한 의사소통의 한 수단으로 만들어낸,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글자 디자인 원리의 창제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글 창제 과정에서 보여진 디자인 방법과 원리의 탐구는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의 방법론을 새롭게 다지는 기초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한국 디자인 철학의 뿌리를 찾는 핵심적인 연구 과제라 할 수 있다.

(Abstract)

Hangeul is already recognized as a world famous writing system. However, the typefaces that may show the excellence of Hangeul lack the systemic development, and their frequent change without independence rather causes an obstruction to the development of visual culture and informational systematization of the country.

In this paper, I presume that the core of this obstruction is caused by a lack of successful inheritance of the creation philosophy and principle of Hangeul. In order to prove this premise definitively, I saw Hangeul from the viewpoint of design, and suggested the base and objectivity to solve the problem by systematically define the excellence of Hangeul.

In this paper, I confirmed that the creation philosophy and principle of Hangeul had the design philosophy that was appropriate for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 of that time, and went through rational design process.

Therefore, as I mentioned earlier, the clue for the problem with Hangeul typefaces can be found when it is handled based on the creation philosophy and principle.

Furthermore, the creation of Hangeul can be explained as a creation of rational and scientific letter as a method of easier communication between different people and nations. Therefore, the study of the design method and principle used in the process of Hangeul creation may provide the new base for the methodology of visual communication design, and it may be a core research subject to find the root of Korean design philosophy.

(Keyword)

Hangeul, Invention philosophy, principle of letterforms

## 머리말

한글은 태생이 남다른 낱소리(音素)글자이며, 자연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도록 만든 자질체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소리 체계와 형태 체계를 일치시킨 복합구조의(멀티미디어형) 글자이다. 이러한 이유만으로도, 'the most scientific system, 'the world's best alphabet', 'one of the great intellectual achievements of humankind'<sup>2)</sup> 등의 세계적인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정작 그 겉모습은 언어학적 우수성과는 비교조차 못할 만큼 초라하기 그지없다. 낱소리 글자인 한글 끝이 창제된 지 550여 년이 넘도록 뜻글자로 대표되는 한자형 글자 틀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그것이며, 28자모(字母)의 조합으로 천지자연의 모든 소리를 시각화할 수 있도록 시작한 한글끝을 낱내(音節)글자 11,172자로 만들어 쓰고 있는 것 또한 그 대표적인 증거이다. 이러한 배경들은 시각문화의 다양성에도 따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표준적 개념의 폰트(font)의 개발 방향마저 흐리게 하여 국가 정보화 전략 차원에서조차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가로짜기가 일반화된 오늘날에도 범국민적 매체인 초·중등 교과서나 신문의 본문에서조차 세로짜기 시대의 활자꼴이 버젓이 가로짜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글씨쓰기 체계와 입력코드, 저장코드, 전송코드 등이 서로 다르다. 더군다나, 컴퓨터 화면에서는 도깨비불 현상이 생기고, 'ㄱ'자 한 가지만도 무려 32가지의 다른 형태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모두 한글꼴이 올바르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여러 단면들이다. 이것들의 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으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 한글의 창제 정신과 원리를 제대로 이어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sup>3)</sup>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전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한글의 창제 배경과 정신 및 한글꼴의 제자와 구성원리를 디자인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우수성을 체계적으로 밝히어, 오늘의 한글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거와 객관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선행 연구된 여러 문헌들을 참고하여 한글의 창제 의도와 배경, 원리 등을 분명하게 밝혔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현대 디자인의 시각으로 해석·비교하여 그 디자인적 특성을 추려내었다.

### 1. 『훈민정음』과 한글 창제의 배경

『훈민정음』이란 1443년(음) 세종대왕(1397-1450년)이 주도적으로 창제한 한국 고유문자인 '한글'의 처음 이름을 말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한글'에 대한 디자인의 근거와 운용법 등을 해설한 책의 이름을 말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앞의 경우는 한글로 이름하고, 뒤의 경우는 훈민정음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훈민정음은 여러 형태의 판본(板本)<sup>4)</sup>들이 전해지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원본으로 인정되는 해례본<sup>5)</sup>을 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 1.1 훈민정음의 구성 체제와 내용의 간추림

훈민정음(해례본)의 구성체제는 크게 3부분으로 나뉘며 그 내용에 대한 요점은 다음과 같다.<sup>6)</sup>

##### (가) 예의

예의란 한글의 보기와 뜻을 가리키는 것인데 내용은,

①세종대왕의 서문에서 한글 창제의 동기와 목적을 밝혔으

며, ②낱소리 글자 17자의 소리나는 위치의 이름과 소리값, 그리고 흘소리 글자 11자의 소리값을 한자음을 이용하여 예시하였고, ③한글을 실제로 사용할 때의 여러 가지 글자 쓰기 규정과 사성(四聲)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다.

##### (나) 해례

『훈민정음해례』라는 제목으로 오해 일례(五解 一例)의 내용이 전개되어 있다.

①제자해: 이 책의 핵심을 이룬 부분으로서 한글 창제의 방법과 원리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즉, 당시의 동양언어학의 대종(大宗)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음운학에서 음운론적 용어라든가 음의 분석·배열방법 등을 도입하고, 원리면에서는 중국철학사상, 특히 그 중에서도 송대의 성리학의 이론을 근간으로 삼았다.

②초성해: 첫째, 한글의 초성(첫소리)은 중국 운서의 자모인데, 성음이 이것으로부터 생기므로 성모(聲母)라 한다. 둘째, 초성(initial consonant)과 운모(final)가 결합하여 음을 이룬다. 셋째, 17자의 자음 외에 각자병서(各字並書)(ㄱ, ㅋ 등)의 6자를 포함한 23자의 조음위치의 명칭을 예시하였다. (여기 23자음은 동국정운의 초성 체계와 일치한다.)

③중성해: 중성(가운데소리)이란 초성과 종성(final consonant)의 사이에 개재하여 음(즉 음절)을 이룬다고 하였다. 그리고 앞의 예의에서 예시한 11자의 모음 외에 다시 이 모음들이 상합하여 복음(複音)이 되는 과정과 이치를 설명하였다. 그 복음자는 모두 18자이다.

④종성해: 종성(끝소리)은 초성과 중성을 이어 받아 자운을 이룬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초성, 중성, 종성(consnant, vowel, consnant)의 음절 구성을 지적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입성법과 8종성법을 설명 예시하였다. 한국어의 성조(tone)를 종성으로써 규정하였다.

⑤합자해: 초성·중성·종성의 세 음이 합하여 글자를 이룬다고 전체하였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CVC의 음절구조를 상정한 까닭이다. 그리고 예의의 서법규정에서 일차 제시한 제규정—부서법·병서법·순경음법·사성법(이를 방점법이라고도 칭함)등—을 부연 설명하였다. 또 본항에는 사(地)、작(隻) 등 25개의 한국어 어휘가 예시되어 있다.

⑥용자해: 앞에서 설명한 오해를 기초로 하여 95개의 어휘를 용례로 들어 놓았다. 표기법의 실재를 실례로 보인 것이다. 훈민정음에는 모두 124개의 고유어가 한글로 적혀 있기 때문에 당시의 낱말의 모습을 파악하는 데에도 값진 자료이다.

##### (다) 정인지의 서

용자해 다음에 한 글자씩을 아래로 내려 쓰여진 부분이 정인지의 서이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만든 배경을 주로 설명하였고, 새 문자 창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배우기 쉬운 뿐더러 동물이나 자연의 모든 소리까지도 기록할 수 있는 우수한 문자라고 자랑하였다.

이 밖에 중요한 점은 훈민정음해례의 저술에 직접 참여한 학자들의 이름을 명기해 놓은 것과, 간행 년대(1446년 음력 9월 상순)를 밝혀 놓은 점이다.

#### 1.2 한글의 창제동기와 목적

허용(1974)은 최현배의 분석을 예로 들며 훈민정음이 그 시대에 창제된 배경을, ①고려 말기 몽고에 당한 곤욕으로, 그

리고 원·명나라 교체기에 즈음하여 나라 안에서는 자아 의식이 강해지기 시작했고, ②주위의 민족들이 각자 자기 나라 글자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한자를 빌어쓰는 데 실패하고, 다른 글자를 빌어쓸 만한 것이 없어서, 백성의 글자 생활이 극도로 빈곤해졌고, ③세종대왕이 학문을 좋아하여 성군으로서의 도리를 깊이 체득하였고, 외세에 대하여 자아를 지키려는 주체성이 강하였으며, 거기에다 혁신적인 정책을 수행하여 나가는 과감한 성격이 겸해 있었고, ④집현전에는 세종의 이러한 정책을 보좌할 만한 많은 학자들이 모여 있었고, ⑤중국과의 외교 정책상, 중국어 통역을 양성해야 했으며, 그들을 과학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어 음운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어서 중국 운학을 연구하게 되었는데, 이 운학의 체계는 새 글자를 만들어 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고, 이러한 독창적인 글자의 창제는 세계 역사에 일찍이 없던 일기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곧, 당시의 세종대왕이 한 민족 한 국가의 언어에 알맞는 독자적인 글자를 만드는 일이 해당 국가와 민족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주체성과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는 데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바로 보고 한글 창제를 추진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한글의 창제 동기와 목적은 여러 가지의 추측이 없지 않으나, 훈민정음 예의 첫머리의 세종어제 서문과 정인지의 서문을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동기와 목적을 분명히 읽을 수 있다.<sup>8)</sup>

첫째, 한국과 중국 양국어의 근본적 차이를 인식하고 우리말에 적합한 새 문자를 창제했다. 이것은 곧 확고한 언어 문자관을 바탕으로 둔 국가주의적 동기이다.

둘째, 일반 대중의 정상적인 문자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민주적 기회 균등 정신의 발로였다.

셋째, 한글을 간단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서 대중들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려는 동기였다. 이것은 문자의 대중화 또는 실용화를 기도한 것이다.

이러한 동기와 목적에 대한 기록은 훈민정음 외에도 세종실록을 비롯한 여러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곧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문화적 독립의 대표적인 선언이며, 행동이었다.

### 1.3 한글창제의 여러 기원 설

한글의 창제 동기와 목적은 『훈민정음』의 기록을 해석해 보는 것만으로도 기본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해례의 내용을 재검토한 결과 애매하고 모호한 점이 적지 않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최초의 자형구성파 해례의 내용에 있어서 그 시간상 선후관계가 명확하게 부각되지 않는 이유 등으로 해례본의 내용 외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종합적인 기원설이 부각되고 있다.<sup>9)</sup> 따라서, 그와 관련된 실마리를 하나라도 더 찾고자 관련 기원설을 재검토 하였다.<sup>10)</sup>

(가) 고전 기원설  
홍양호, 정인지, 이덕무, 게이(J.S. Gale)등의 주장으로 중국의 '옛전자(古篆)'를 본 뱃다는 설.<sup>11)</sup>

(나) 범자 기원설  
성현, 이수광, 황윤석, 이능화 등의 주장으로 인도의 옛글자인 범자(梵字)를 본 뱃다는 설.<sup>12)</sup>

(다) 파스파자 기원설  
이익, 유희, 이능화 등의 주장으로, 원(몽고)의 중 파스파가

만든 소리글자를 본 뱃다는 설.<sup>13)</sup>

(라) 티베트 문자 기원설  
로스니(Lèon de Rosny), 이삭 테일러(Isaac Taylor), 가베렌츠(G. von der Gabelentz), 힐버트(H. B. Hulbert)등의 주장으로, 한글은 주로 티베트(西藏) 글자 또는 그 계통의 글자를 기초로 만들었다는 설.<sup>14)</sup>

(마) 빠리(pali)자 기원설  
이삭 테일러(Isaac Taylor), 필립 베거(Philippe Berger) 등이 빠리 글자가 한글의 바탕이 된다고 주장하는 설.

(바) 고대 문자 기원설  
권덕규, 김윤경, 권상로 등의 주장으로, 우리 나라 고대에 특종의 글자가 있으며, 그 자형이 오늘날과 비슷하다는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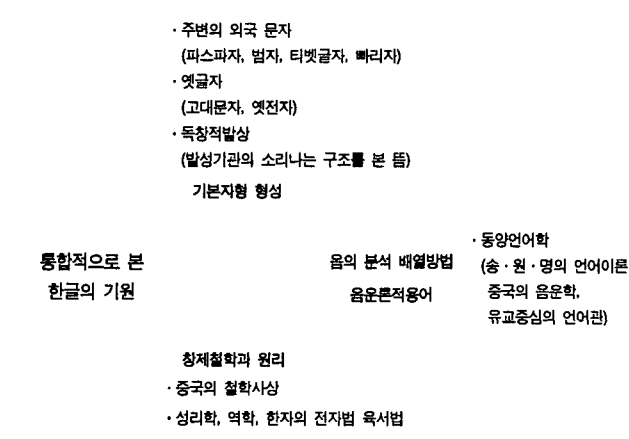
(사) 발음기관 상형설  
신경준, 정인지, 홍양호, 지식영, 시라로리, 최현배 등의 주장으로 한글의 형태가 발음 기관을 본 뱃다는 설.<sup>15)</sup>

(아) 창호 상형 기원설  
안드레 에카르트(P. Andres Eckardt)가 주장으로, 창문의 문살의 수직선과 수평선에서 새 글자 창제의 광명을 발견하였다는 설.

(자) 태극사상 기원설  
정인지, 신경준, 어윤적 등의 주장으로, 한글의 동양철학의 기조인 태극 음양의 이치에 인하여 제정되었음을 풀이한 설.

(차) 그 밖의 여러 설  
거란글자, 여진글자 기원설, 일본 신대 글자 기원설, 악리 기원설, 28자리 기원설, 설총 창작설, 료의 창작설, 시리아 글자에서 왔다는 설, 근 자에서 생겼다는 설, 팔괘에서 왔다는 설, 점선 도형에서 왔다는 등등의 여러 설.

이와 같이 여러 기원설 들은 대부분 서로간에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나름대로의 근거와 설득력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러 설의 내용을 종합해 본 결과, 한글의 창제철학과 원리는 『훈민정음해례본』을 기본으로 이해하되 다양한 방향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여겨졌고, 그에 따라, 기원설을 포함한 여러 자료의 대표적인 근거들을 도표로 정리해 보았다. 그 결과, 한글은 발상과 자료조사, 또는 디자인 과정에서 주변국가의 글자와 관련 전문지식들이 총동원되었고, 그 원리들이 다양하게 응용되어 창제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추측이 가능한 것은 오늘의 디자인 과정으로 보더라도, 당연히 거쳐야 할 일반적인 과정이기 때문이기도 하다.(그림-1)



【그림-1】 한글 창제에 영향을 준 여러 배경

## 2. 한글의 창제와 과정

정시화(1980)는 우리 나라의 디자인은 '1960년대 이전에는 사실 디자인의 개념보다는 미술개념이 더 짙었던 시대였다.'고 했고, '우리의 현대 디자인은 실제 사회적 요구나 사회적인 인식보다는 교육에서 먼저 인식했다는 특수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디자인 역사가 생활 속에서 필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발전하지 못하고 교육에서부터 출발한 기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디자인에 대한 철학과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단절된 역사나 문화적인 특성의 이유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식화·체계화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추측은 여러 가지 근거로 뒷받침할 수 있겠으나, 한글의 창제 정신과 과정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그에 대한 확신이 간다. 지금으로부터 550여년 전인 1440년대에 우리에게 디자인이라는 '어휘'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미 디자인의 '내용'은 분명하게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훈민정음》에 기록된 그 제작 의도나 과정과 결과물은 이미 근대적 개념의 '디자인' 수준을 뛰어넘은 것이다. 이 장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주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한글의 디자인 과정과 방법을 분석하였다.

### 2.1 한글의 디자인 과정과 방법

다음은 『훈민정음』의 내용, 관련 기원설과 문헌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글의 디자인 과정과 방법을 오늘의 분석적 프로세스(Analytic Design Process)의 형식으로 정리해 본 것이다. 16)(그림-2)

문제의 정의 및 목표 설정

자료수집 및 분석

디자인방향의 설정 및 안의 발전

타당성 조사 및 평가

최종안의 선정 및 발표

[그림-2] 일반적인 디자인 과정

(가) 문제의 정의 및 목표 설정

세종대왕은 훈민정음 서문에, '누구나 제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쉽게 익히고 사용에 편리한 글자를 만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나) 자료 수집 및 분석

문헌의 기록과 기원설 등을 살펴보면, 동양철학을 바탕에 두고, 옛 글자와 주변 국가의 글자와 중국의 음운학 등을 넓게 참고하였다.<sup>17)</sup>

(다) 디자인 방향 설정 및 안의 발전

디자인 방향은 '소리에 따라 이치를 다한', 자연스러운 글자

이며,<sup>18)</sup> 이러한 방향에 따라 글자의 형태를 '상형'과 '가획'의 원리로 체계화하였다.

(라) 타당성 조사 및 평가

'죽산안씨대동보'<sup>19)</sup>나 '세종실록' 등을 살펴보면,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든 후 바로 반포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긴밀한 의논을 하였으며,<sup>20)</sup> 3년 동안의 검토기간을 가졌다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만이 아닌, 글자꼴에 대한 여러 가지의 모색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 최종안의 선정 및 발표

한글 반포 이후에도 석보상절(1447년), 월인석보(1458년) 등의 판본을 보면, 줄기의 형태가 점에서 줄기로 발전되거나 부분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한글꼴의 최종안이 선정된 후에도 계속적인 형태의 보완이 있었다는 증거이다.(그림-3)

디자인 전략

입안

컨셉기획

예비개발

시안개발

디자인결정

제작

사용

[그림-3] 폰트디자인의 일반적인 과정

### 2.2 창제 당시 한글의 디자인 철학

(가) 자연과 우주 질서의 모방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한글의 닿소리글자(자음자)의 형태는 소리의 변화에 따른 발생기관의 형태 변화에서 따왔으며, 홀소리글자(모음자)는 우주의 원리를 체계화한 역학의 영향으로 천·지·인의 삼재 원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돈주(1988)는 훈민정음(1446) 제자해 첫머리의

"천지의 도(道: 우주의 근본 원리는 하나의 음양 오행일 따름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성음(聲音)도 모두 음양의 이치가 있는 것인데, 돌아보건대 사람이 이를 살피지 못할 따름이다.

라는 구절을 예로 들며, 훈민정음의 창제 철학은 인간의 성음(聲音)을 태극(太極)·음양(陰陽)·오행(五行)의 이치로 풀어 보려고 한 것이며, 이것은 우주간의 모든 원리가 역(易)을 바탕으로 해서 발달한 태극·음양·오행 등에 있다고 생각한 송유(宋儒)들의 철학 사상을 계승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sup>21)</sup> 이것은 곧 성리학(性理學)의 영향을 말하는 것이며, 성리학은 바로 중국의 역학 이론에서 발달한 것이다. 따라서 역학 이

론의 바탕은 '만물의 생존하는 원리를 구명하고자 한' 주역의 사상이 바탕에 있는 것이니, 결국 한글의 제자 원리는 자연과 우주 질서의 모방에서 비롯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의 모방이란 단순한 길모습의 '재현'이 아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한 "자연현상의 내부에 잠겨있는 고차원의 보편적 본질을 묘사한 것"이라는 뜻과 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자연과 우주의 법칙을 디자인 사상의 근원으로 삼는 것은 근대 이후의 예술가나 디자이너들에게도 가장 기본적인 철학이었다. 근대 디자인의 사상을 확립하는 데에 큰 영향을 끼친 작가이자 미술운동가였던 러스킨(John Ruskin, 1819~1900)도 모든 미(美)는 자연의 법칙에 기초한다고 생각했으며, 따라서 좋은 장식은 당연히 자연의 법칙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22)

#### (나) 인간 중심의 민주정신

이돈주(1988)는 한글 창제에 관련된 학문적 배경을 중국음운학(音韻學)과 송대의 성리학임을 강조하고, 유창균(1979)의 글을 인용하면서, 성리학은 궁극적으로 우주정신 곧 성인의 도를 올바르게 깨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것은 단순히 영감에 의해 깨쳐지는 것이 아니라, 성인들이 기록해 놓은 문자를 통하여 교육함으로써 깨우쳐지게 되며, 이 기록된 문자를 체계적으로 이해하자면 문자 그 자체가 지닌 보편적 원리를 이해해야 하고, 이 보편적 원리를 운학(韻學)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한다. 말하자면 음운학은 성인의 도를 체득하는 원초적 과정으로 이해되었던 것이다. 23)

또한 강신항(1991)은, 《예기(禮記)》를 인용하면서, 훈민정음의 창제는 단순히 표기수단만을 해결하려던 것이 아니라, 음악과도 관련시키려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훈민정음 창제 무렵의 당사자들이 예(禮)를 아는 것이 치국안민을 위하여 불가결한 일이며, 악(樂)은 치국의 요결이라고 생각한 예악사상(禮樂思想)을 바탕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당시의 유학자들에게 예(禮)는 일체의 제도·의문(儀文)을 말하는 것인데, 악(樂)은 인민생활의 우(優)와 악(樂)의 감정이 표현되는 것으로 보았고, 또 악의 용도는 민성을 화하게 하는데 있다고 보았으므로, 성음의 사정이 능히 사람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악의 준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배경에서도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는 것이다. 24) 이와 같이 사상적 배경의 근본에는, 민본(民本), 곧 인간을 중심으로 둔 존중의 사상이 드러나 있다.

이러한 인간중심의 사상은, 소비지향 중심적인 오늘날의 디자인에 경종을 울리고, 인간을 위한 진정한 방향의 디자인을 주장한 파파넵(Victor Papanek)이 '디자인의 궁극적 목표는 인간의 환경과 그가 사용하는 도구를 변형시키고 더 나아가 인간 자체 까지도 변형시키는 것이며, 또한 '디자인은 디자이너의 상품과 환경, 나아가서는 디자이너 그 자신까지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까지 인간에게 주어진 것 중에 가장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에 디자이너는 그의 사회적, 도덕적 책임감을 의식해야만 한다' 25)고 강조한 바와 서로 통한다. 이러한 인간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상은 디자인의 개념이 형성되면서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온 디자인 정신의 원류이며 기초 26)이다.

또한, 세종어제 서문에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 싶어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도다”

라고 하여 백성들이 한자가 배우기가 어렵고, 언어와 문자의 이중 생활에서 오는 고통이 많음을 강조하고 있고, 정인지의 서문에서도,

“글을 배우는 사람은 그 뜻의 익히기 어려움을 한탄하고, 형옥(刑獄)을 다스리는 사람은 그 곡절의 통하기 어려움을 병으로 생각했다”

라고 하여 한자·한문의 병폐를 지적하고 한자로서는 정상적인 문자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일반 대중의 정상적인 문자생활을 도모하기 위함이 훈민정음 제작 동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27) 이돈주(1988)는 위의 인용문에서는 '사법의 공평까지도 도모하려 한 동기를 엿볼 수 있어, 이 점들을 확대 해석하면 민주적 기회균등의 정신' 28)으로도 보고 있는데, 이러한 민주적 정신은, 근대디자인 사상의 선구자인 모리스(William Morris, 1834~1896)가 '나는 소수를 위한 예술은 원치 않는다. 마찬가지로 소수를 위한 교육도, 소수를 위한 자유도 원치 않는다. 만민에게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이면 예술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29)라고 역설한 내용과 맥락을 같이한다.

#### (다) 실용정신

어제서(御製序)에,

“백성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나날이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라고 한 것은 지금까지 한자·한문의 어려움 때문에 문자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 새문자를 만들에 대중적이며 실용적인 보편화를 기도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한자가 수입된 지 수 천년이 되어도 한자·한문은 특권층의 전유물처럼 되어 왔고, 일반 백성들은 쉽게 제 뜻을 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익히기 쉽고 쓰기 쉬운 문자를 만들고자 한 기본 정신은 훈민정책(訓民政策)으로서, 국민 교화의 정도(政道)를 실현하고자 한 원대한 이상에 터잡고 있는 것이다. 정인지의 해례 서문에서,

“스물 여덟 글자로서 전환이 무궁하고 간이하고도 요령이 있으며, 정밀하고도 잘 통한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 아침을 마치기 전에 다 깨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열흘이면 배울 것이다. ....쓰는 데에 불비함이 없고 가는 데에 통달하지 않음이 없다. 비록 바람 소리, 학의 울음 소리, 닭 울음 소리, 개 짖는 소리라도 다 적을 수 있다”

라고 하였다. 이것은 한글을 간단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서 대중들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며, 문자의 대중화 또는 실용화를 의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신은 제2차대전 후에 전개된 굿디자인 운동에 많은 지침을 마련해 준 스웨덴의 파울슨(Gregor Paulsson, 1889-1977)이 주장한 '실용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제품은 의미 뿐만 아니라 형태도 그 용도로부터 비롯된다.'거나 '물건의 형태는 본래 실용적 효용, 즉 기능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30)라는 의미와 비교하여 새길 만한 가치가 있다.

### 3. 한글의 디자인 원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글 창제는 분명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디자인 과정이나 기본 철학의 태도에서도 오늘날의 디자인에 비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디자인 원리에서도 단순하고 체계적인 질서를 보여주고 있다.

### 3.1 자모의 조형과 조합의 원리

창제 당시의 한글꼴의 기본 형태소는 조형의 기본 요소인 점, 수직선, 수평선, 원, 사각형, 삼각형 등 모두 6가지의 형을 바탕으로 삼고 있는데,<sup>31)</sup>(그림-4)



[그림-4] 한글 창제의 기본형태소

이러한 기본 형의 탄생 배경은 생성론을 기본으로 하여, 자음자는 중국 송대의 등운학의 이론을 따라 발성기관의 조음점의 변화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모음자는 음성자질보다도 역학의 삼재이론을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더 거슬러 올라가 후한(後漢)의 허신(許愼)이 지은 《설문해자(說文解字)》나 육서(六書) 등 여러 가지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추측이 되지만, 여기에서는 가능한한 이러한 배경보다는 당시 한글꼴의 결과에 우선을 두고 분석하였다.

#### (가) 첫소리 글자의 조형과 구성 원리

제자해에 의하면, 첫소리(초성) 글자(닿소리 글자)는 전청(全淸) 글자 중에서도 ㄴ ㄹ ㅁ ㅂ 의 네 글자를 가장 처음 만들었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ㄱ 자를 추가하여 아(牙)·설(舌)·순(脣)·치(齒)·후(喉)의 오음(五音)에 해당하도록 ㄱ ㄴ ㄹ ㅁ ㅂ 의 다섯 글자를 기본 글자로 삼았고, 이것들에 가획의 원리를 적용하여 나머지 글자를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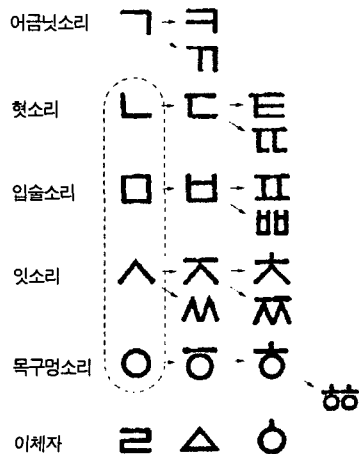
다음은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①발성기관의 소리나는 부분 또는 그 부분이 변하는 모양을 본떴다.

②같은 음성계열의 글자들은 소리의 거세짐에 따라 줄기를 더하는 일정한 질서와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sup>32)</sup>, 줄기를 계속해서 더할 때는 항상 세로줄기 보다 가로줄기가 먼저 더해지고 있다.

③기본 글자를 바탕으로 발전된 모든 첫소리 글자는 일정한 가상의 정네모꼴 안에서 대칭성을 지향하고 있다.

④각각의 형태는 단순 간결한 직선과 사선, 정원(正圓), 직각 등의 기하학적인 형태를 띠고 있으며, 줄기의 굵기가 일정해 보이고, 부리나 맺음은 변화 없이 단순한 형태로 마무리되어 있다. 또한, 세로와 가로줄기의 길이는 감각적으로 일정해 보인다.(그림-5)



[그림-5] 첫소리 글자의 기본 조형과 전개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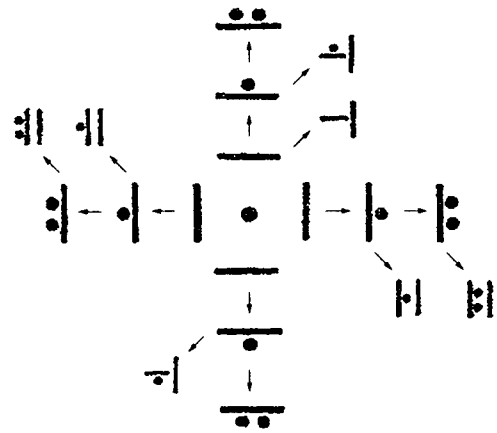
#### (나)가운뎃소리(중성) 글자의 조형과 구성원리

①모든 형태는 하늘(우주)을 상징하는 점으로부터 시작하며<sup>33)</sup>, 점(나중에 줄기로 변화함)과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수평선, 수직선의 형태가 서로 어우러져 모든 가운뎃소리 글자(홀소리 글자)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

②세로줄기 계열의 홀자(홀소리 글자)와 가로줄기 계열의 홀자는 각각 다른 소리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밝은 소리와 어두운 소리를 점의 위치 변화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닿자와 마찬가지로 소리의 변화 체계에 따라 줄기나 점이 더해지고 있다.

③수직선과 점, 수평선과 점이 만날 경우 점은 항상 중심의 위치에 놓여지며, 모든 홀자는 상하 또는 좌우의 대칭원리로 체계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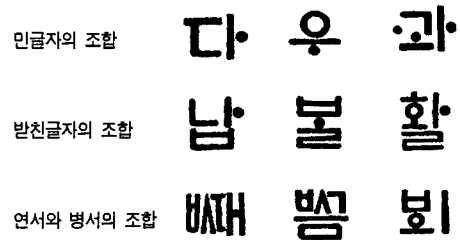
④줄기의 굵기가 일정하며, 부리나 맺음은 단순하게 마무리되어 있다.(그림-6)



[그림-6] 가운뎃소리 글자의 기본 조형과 전개과정

#### (다) 끝소리 글자의 조형과 구성 원리

제자해에 의하면, 나중소리(중성)글자는 첫소리 글자를 그대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의 이유는 '사물이 땅에서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곳이 모두 땅에 있기 때문'이라는 등의 철학적 기록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끝소리 글자의 조형과 구성 원리는 별도로 다루지 않았다.



[그림-7] 글자조합의 기본 원리

#### (라) 글자 조합의 원리

첫소리·가운뎃소리·끝소리(초·중·종성)글자가 서로 어우러지는 원리에 대한 기록은, 훈민정음의 합자해(合字解)에서 볼 수 있는데, 내용을 간추리면,

①첫소리 글자는 가운뎃 소리글자의 위에 놓이거나, 왼쪽에 놓이며, 가운뎃소리 글자는 첫소리 글자의 아래에 놓이거나,

오른쪽에 놓인다. 또한, 끝소리 글자는 첫소리 글자와 가운데소리 글자의 아래에 놓인다.

② 두자나 석자가 어울려 쓰일 때에 늘 가지런히 쓸 것이며, 왼쪽에서 시작하여 오른쪽으로 쓴다.(그림-7)

이와 같은 내용은 글씨 쓰기 순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디자인의 원리라고 하기보다는 당시의 글씨 쓰기 체계와 일치시킨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규칙이라 할 수 있겠다.

### 3.2 글자 조형의 원리 분석

3.1의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모(字母)의 조형과 구성, 그리고 그것을 조합하는 원리에는 다음과 같은 글자 조형의 기본 원리가 적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가) 상형의 원리

닿소리 글자(자음글자)가 발성기관의 소리나는 부분을 본떠서 만든 원리라는 것은 훈민정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똥'은 '본똥'이되 일정한 질서와 체계가 있는 형이상학적인 본똥이다. 이는 곧 소리체계와 형태체계의 관계에 일정한 질서를 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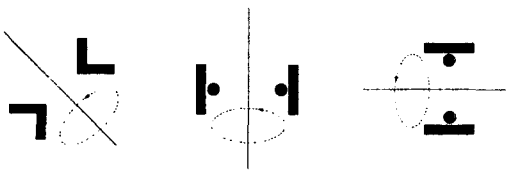
#### (나) 가획과 반복의 원리

소리가 거세짐과 소리의 전개 원리에 따라 줄기가 더해지는 '가획의 원리'가 닿자와 흘자 모두에 적용되고 있다. 닿자에서는 소리의 거세짐에 따라, 흘소리에서는 흘소리(초출자)에서 겹소리(재출자)로 전개됨에 따라 줄기나 점이 단계적으로 더해지고 있다. 또한 병서(並書), 연서(連書) 등의 방법에서도 유출사상을 바탕에 둔 것으로 보이는 '가획'과 '반복'의 원리가 응용되고 있다.

또한, ㄱ에서 ㅋ, ㄷ에서 ㅌ, ㅂ에서 ㅃ 또는 ㄱ에서 ㅋ, ㄴ에서 ㄹ과 같은 전개 과정에서 처럼 형태를 두 번 반복하여 일정한 체계를 가진 새로운 글자를 얻어내는 '반복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 (그림-5, 그림-6 참조)

#### (다) 대칭과 회전 원리

'丨'자 계열 모음자에서 상·하의 대칭현상이, 'ㄷ'자 계열의 모음자에서는 좌·우의 대칭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ㄱ자와 ㄴ자는 대각선상의 대칭 또는 회전의 원리로 해석할 수 있다.(그림8)



【그림-8】 대칭과 회전의 원리

#### (라) 최소화 원리

각 형태소는 극도로 단순 간결한 형태인 점, 직선, 정원(正圓), 사각형, 삼각형 등의 기하학적인 형태를 띠고 있으며, 줄기의 굵기가 일정하며, 부리나 맺음은 변화 없이 단순하게 마무리하여 변화를 최소화하고 있다. 이것은 원시글자의 일반적인 성격이기도 하지만 기록상 주역<sup>34)</sup>의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아, 단순히 감각적인 결과가 아니라 의도적인 단순화와 간결화의 시도라 하겠다. 결국, '가획'이나 '반복', '대칭'과 '회전'의 원리도 모두 이 최소화의 원리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은 곧 최소의 변화로 조대의 효과를 노리는 경제원리가 적용된 것이다.

### 맺음말

한글, 이것은 깊고도 넓은 철학적 대상이며, 단순하되 무궁한 조형 원리의 보물창고이다. 알면 알수록 매력 넘치고, 보면 볼수록 자랑스럽고 높아 보인다. 아직 한글을 말하기에는 아는 것이 너무도 부족하고, 앞으로 캐내고 빛내야 할 것이 더욱 많음을 재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배경과 특성, 원리를 간추릴 수 있었다.

1. 자랑할 만한 문화적 유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과 원리를 제대로 모르고 또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설득할 만한 자료와 근거의 발굴 부족과 그에 대한 철저한 분석,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체계화가 부족했음이다.
2. 한글은 분명한 창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에 따라 계획적이며 체계적인 디자인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또한, 어떤 특정한 몇 가지의 영향만이 아니라, 당시의 주변 국가와 민족의 문자, 사상 등을 참고하여 우주와 자연의 생성과 변화의 원리에 따라 창제되었다.
3. 한글 창제의 동기와 과정에는 자연과 우주 질서의 모방, 인간 중심의 민주정신, 실용정신 등의 현대적 디자인의 사상적 특성이 드러나 있다.
4. 한글의 글자 조형 원리에는 상형, 가획과 반복, 대칭과 회전 등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고, 이것은 모두 최소화의 원리를 지향하고 있으며 시스템적이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1440년대의 결과물을 오늘의 시각으로 살펴 본 결과이다. 한글은 분명히 '천하의 보배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흠이 묻은 보배요, 더 닦아 빛낼 여지가 있는 보석과 같은 것'<sup>35)</sup>이다.

오늘의 한글꼴은 다양성은 있으나, 쓸만한 것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원인이 무엇인가? 앞서 살펴 본 한글의 창제 정신과 원리를 무시한 탓이라 아니할 수 없다. 옛 것이라고 무시하고 이것의 불편함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보고 또 보아도, 창제 당시의 한글의 정신과 원리는 세계적이라 자랑할 만큼 체계적이고, 우수하다. 오늘에 처한 한글의 문제는 이러한 창제 정신과 원리를 기본으로 삼고 풀 때에 그 해결이 가능하며, 또한, 이러한 정신과 원리는 주체성 있는 한국 디자인의 정체성을 세우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디자인의 시각으로 살펴 본 바, 세종대왕은 훌륭한 디자인 디렉터였으며, 한글은 당시 '조선'의 문화적 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시대적 배경과 언어 환경에 어울리는 성공적인 글자 디자인이었다. 또한, 『훈민정음』은 한국을 대표하는 훌륭한 디자인 철학서이자 지침서(manual)라 할만하다.

### 참고문헌

- 강신항, 증보판 훈민정음 연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1.
- 강창석, 한글의 제자 원리와 글자꼴, 새국어생활 제6권 제2호, 19-35쪽, 1996.
- 고헌철, 주역, 고려문화사, 1989.
- 김석연, 정음 사상의 재조명과 부흥, 한글 219호, 155-217쪽, 1993.
- 김석진, 대산주역강의, 한길사, 1999.
- 김재은, 현대디자인의 철학, 창지사, 1994.



- 김정수, 한글의 역사와 미래, 열화당, 1990.
- 김진평, 한글의 글자표현, 미진사, 1976.
- 동구어문학회: 훈민정음, 이우출판사, 1980.
- 문효근, 《훈민정음》 제자 원리, 세종학연구, 제8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282쪽, 1993.
- 민경우, 디자인의 이해, 미진사, 1995.
- 박병천, 한글 궁체 연구, 일지사, 1983.
- 박지홍, '훈민정음' 분야에 대하여, 한글, 제 216호, 115-141쪽, 1992.
- 송기중, 세계의 여러 문자와 한글, 새국어생활, 제6권, 제2호, 65-83쪽, 1996.
- 신상순, 이돈주, 이환목 편: 훈민정음의 이해, 전남대어연총서 1, 한신문화사, 1988.
- 안상수, 한글꼴의 원형태 연구, 제4회 한글 및 한국어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601-611쪽, 1992.
- 안상수 · 한재준, 한글 디자인, 안그라픽스, 1999.
- 유창균, 훈민정음 역주, 형설출판사, 1996.
- 이근수, 훈민정음 신연구, 보고서, 1995.
- 이기문, 현대적 관점에서 본 한글, 새국어생활, 제6권, 제2호, 3-18쪽, 1996.
- 이돈주, 훈민정음의 해설, 훈민정음의 이해, 전남대어연총서 1, 한신문화사, 1-40쪽, 1988.
- 이돈주, 훈민정음의 중국음운학적 배경, 훈민정음의 이해, 전남대어연총서 1, 한신문화사, 199-237쪽, 1988.
- 전남대학교 어학연구소 편: 훈민정음과 국어학,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2.
- 정경원, '디자인 매니지먼트 프로세스의 기본구조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VOL.11, 160-161쪽, 1995.
- 정시화, 현대디자인연구, 미진사, 261쪽, 1981.
- 최현배(1940), 고친 한글갈, 정음사, 1971.
- 한글학회: 훈민정음, 해성사, 1998.
- 허응, 한글과 민족문화, 교양국사 총서·1,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1974.
- 홍이섭, 세종대왕,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20-223쪽, 1971. 세종실록.
- 한재준, 정보화 사회에서의 한글디자인 연구, 대유공업전문대학 논문집, 제 11호, 373-391쪽, 1989.
- 한재준, 훈민정음에 나타난 한글의 디자인적 특성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no. 17, 제 5회 가을 학술연구발표대회 개요집, 57-58쪽, 1996.
- 勝見 勝 의(1978), 박대순 옮김(1983), 현대 디자인 이론의 사상가들, 미진사, 156-160쪽.
- Geoffrey Sampson: Writing Systems, The Standford University Press, 1985.
- DIAZABURO OKITA(1993), 박대순 옮김, 프로덕트 디자인 연구, 도서출판 국제, 1995.
- Victor Papanek(1973), 현용순 · 이은재 옮김, 인간을 위한 디자인, 미진신서 01, 미진사, 1983.

## 후주

- 1) Geoffrey Sampson이 그의 저서 'Writing System(1985)'에서 한글을 '음소문자(音素文字)'와는 별도의 '자질체계(featural system)'의 글자로 분류하였고, [이기문(1996)의 '현대적 관점에서 본 한글', 7-8쪽 참조 김석연(1993)은 한글을 자질문자(Allograph/Allophonic Alphabet)라고 하였다. ('정음 사상의 재조명과 부흥', 한글 219호, 93년 봄, 155-217쪽)
- 2) 각각 E.O.Reischauer(1960), F.Vos(1964), Geoffrey Sampson(1985)의 주장이다. [이기문(1996)의 위에 든 책, 6쪽-8쪽에서 재인용] 이 외에도 국내는 물론이고, 홀로리안 클마스(1990), 맥클레이(J. D. McCawley)(1996) 등을 포함한 수많은 외국의 저명 학자들이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다.
- 3) 한재준(1989), 정보화사회에서의 한글디자인연구, 대유전문대학 논문집, 제 11호, 373-391쪽.
- 4) 안병희(1976), 강신항(1991), 이돈주(1993), 이근수(1995), 유창균(1996) 등의 조사에 의하면, 훈민정음은 (가)해례 첨가본 (나) 실록본 (다) 예부윤락본(禮部韻略本) (라)월인석보본 (마)박승빈 구장본(朴勝彬 舊藏本) 등 여러 형태의 판본으로 남겨져 있다.
- 5) 훈민정음의 원본에 해당하며, 세종이 28년 9월에 반포할 때 간행하였다. 이 책은 일찍이 없어져 볼 수 없다가 1940년경 경상북도 안동의 이한길(1880-1950)덕의 세전기보로 묻혀 있었는데 골동품 수집가인 전형필씨에게 넘겨짐으로써 학계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순 한문으로 되어 있고, 예의, 해례, 정인지의 서문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 책의 집필자들은 정인지, 신숙주, 심삼문, 최항, 박팽년, 강희안, 이개, 이선로 등 8인이며, 해례편이 있다고 해서 훈민정음 해례본, 또는 훈민정음이라고도 한다.
- 6) 이돈주(1988), 훈민정음의 해설, 훈민정음의 이해, 전남대어연총서 1, 한신문화사, 3-9쪽.
- 7) 허응(1974), 한글과 민족문화,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55-57쪽.
- 8) 주로 이돈주(1988)의 위에 든 글과, 박종국(1984)의 '세종대왕과 훈민정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77-114쪽, 이근수(1995)의 '훈민정음 신 연구', 보고서, 9-13쪽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 9) 유창균(1996)은 그의 책 '훈민정음역주'의 161-162쪽에서 '훈민정음은 한자와는 달리 인위적으로 가공된 문자이기 때문에, 그 기원이 어느 문자보다도 분명할 듯하데, 실상은 원본이라고 할 해례본이 발견되기 이전이나, 그 이후에 있어서나 문맥상 모호한 점이 없지 않아, 구구한 기원설이 속출한 바 있으며, 따라서 '훈민정음의 기원에 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10) 주로, 최현배(1940)의 '고친한글갈', 강신항(1987)의 '훈민정음연구', 이근수(1995)의 '훈민정음 신연구'를 참고하였다.
- 11) 세종실록(권 제 102, 장 42), 정인지의 훈민정음 서문, 최만리의 상소문 등에 표현된 “象形而字儼古篆”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주장으로 중국의 '옛전자'를 본 뱃다는 설이다.
- 12) 범자란 산스크리트어를 적는 인도의 옛 글자를 말하는데, 성현, 이수광, 황운석, 이능화 등은 한글의 근원을 범자로 보았다. 이 설의 주장은 결국 한글이 몽고글자(파스파자)를 본 받았기 때문에 몽고글자의 근원은 본디 인도의 운학과 글자에 근원이 있다는 것으로, 파스파문자 기원설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불교의 전파 과정에서 인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인도 고대의 성경을 적는 말을 산스크리트(Sanskrit 梵語)라 하며 산스크리트를 적기에 이용된 글자를 범자(梵字 devanagari)라 한다. 옛적 중국 및 우리 나라에서 범자라 하는 것은, 중기(中期) 인도 글자의 한 갈래 “심담 글자”이다. 심담(Siddham)은 여러 소견이 있어 그 자수가 일정하지 않으나, 가장 원비한 꼴로서 홀소리 글자(미디) 16, 닿소리 글자(체문)35, 합 51자로 되었다.( 최현배(1940)의 '고친한글갈', 정음사, 608쪽, 1971 참조)
- 13) 파스파자란 원(원고)의 중 파스파가 만든 글자로서 소리글자인데, 한글이 이 글자를 본받았다는 설이다. 첫째 파스파자는 한글과 같은 소리글자라는 점. 둘째 세종께서 명나라의 한길화사 황찬이 요동에서 귀양살이 할 때

에 그에게 성삼문 등을 무려 열세 번이나 왕래하게 하였다고 하는데, 황찬이 우리에게 전한 것은 몽고글자일 것이라는 점, 셋째로는 고려 충렬왕 때에 그 왕후인 원의 공주가 그 본국에 보내는 편지에 사용하였다는 위글글자는 곧 서역글자이니, 몽고글자와 같은 계열의 글자로서 원에서도 통용하던 터인데, 우리의 한글과 마찬가지로 소리글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근거로 이익, 유희, 이능화 등이 몽고자 기원설을 주장하고 있다. 고려말 이래로 궁중에서 몽고말 몽고글자를 사용하였다.(최현배의 위에 든 책, 609-610쪽) 市川三喜·服部四郎(1955)도 <세계언어개설> (하권 p.544, 1955, 연구사)에서 "정방형문자·사각문자라 불리는 이 신문자가 몽고문자를 비롯한 제언어 즉, 중국어·티벳어·터키어 및 범어까지 서사(書寫)할 수 있는 국제문자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을 보아도 그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이근수의 위에 든 책, 186쪽)

14) 로스니(Léon de Rosny: Aperçu de langue Coreene. 1864), 이삭 테일러(Isaac Taylor : The Alphabet 1883), 가베렌츠(G. von der Gabelentz: Zur Beurteilung des Koreanischen Schrift- und Lautwesens. 1892), 헬버트(H. B. Hulbert: The Korean Alphabet. 1892. (2)The Korean Alphabet. 1896. (3)Remarks on the Korean Alphabet. 1902) 등의 주장으로, 한글은 주로 티벳(西藏)글자 또는 그 계열의 글자를 기초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 중 모음자는 조선사람 자신의 발명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대부분 티벳 글자와의 관련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헬버트의 경우 한글의 자음자는 순전히 티벳 글자에서 온 것임을 주장하였다. (ㄱ) 불교와 함께, 서장의 서적이 들어와서, 한국의 절에 간수되었다. (ㄴ) 한글 발명 당시에는 달단은 명조의 세력에 압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글자 곧 거란 글자, 여진 글자 등이 한글 창제에 본보기가 될 수 없었다. (ㄷ) 조선의 학문은 당시 절에 국한되어 있었다. (ㄹ) 현대 가장 좋은 역사책인 '연결실기술'은 한글이 서장 글자와 고전 과정에서 나왔다고 명기되어 있다. (ㅎ) 서장 글자가 한글의 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소리글이었다. 이리하여, 한글의 닿소리 글자는 서장 글자에서 나왔다. 그러나, 그 홀소리 글자는 서장 글자와 달라 고전에서 나온 것이라 하였다. (최현배의 위에 든 책, 610-611쪽.)

15) 신경준, 정인지, 홍량호, 자서영, 시라로리 등의 주장으로, 한글의 형태가 발음기관을 본떴다는 설이다. 이 발음기관 본뜸 설은 발음기관인 입술·혀·이·염니·목을 본떴다는 것이나, 혹은 그 생김새만을 본떴다고 하고, 혹은 그 알함을 본떴다는 학설이다. 주로 자음자가 발음기관을 본떴다는 설이다.

16) 분석적 프로세스는 '주어진 문제를 분석적으로 풀어내기'는 데는 매우 능률적일지 모르나, 새로운 문제를 찾아내거나 고도로 창의성이 있는 디자인안을 창출하는 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너무도 틀에 박힌 접근을 유도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 또한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없지 않지만, 공상적인 디자인 프로세스(Visionary Design Process)적인 방법으로 비교하는 것보다는 창제 당시 한글 디자인 프로세스의 체계성을 입증하는 보편성과 객관성에서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 방법을 선택하였다. [김경원(1995), '디자인 매니지먼트 프로세스의 기본구조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VOL.11. 160-161쪽.]

17) 세종께서 한글을 처음 지으실새, 그때에 명 나라의 한림학사 황찬이 요동에 귀양살이 하는지라, 성삼문 무리를 보내어 질문하기를 무릇 열세 번이나 왕래하였다 한다. 그런데, 중국 글자는 우리글과는 딴판으로 다르니, 찬이 무슨 관계를 할 수 있으랴? 이때에 원이 망한 지 겨우 일흔 아홉 해인 즉, 그 글자의 지식의 전함이 아직 없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황찬이 우리에게 전한 것은 다름이 아니요, 오직 몽고글자에 관한 지식일 것이다. (최현배의 위에 든 책, 611쪽) .

18) 이것은 훈민정음 첫머리에 '천지자연의 원리는 오직 음양 오행일 뿐이다. 곤과 복사이가 태극이 되고, 이 태극이 움직이고 멎고 한 다음에 음과 양이 생겨나는 것이다.'라고 한 바와 같이 당시의 동양철학의 주류인 성리학의 영향이다.

19) 이기문(1996), 현대적 관점에서 본 한글, 새국어생활, 제 6권, 제 2호, 5-6쪽.

20) 이기문(1992)은 '훈민정음의 친제론', 한국문화 13. 7쪽에서 '홍무정음역훈'과 '직해동자습의 서문에 문종이 한글 창제의 일을 도왔음을 말한 사실을 예로 들고 있다.

21) 이돈주(1988), "훈민정음의 중국음운학적 배경", 『훈민정음의 이해』, (서울: 한신문화사), 204쪽.

22) 김재은(1994), 디자인의 철학, 창지사, 39쪽.

23) 이돈주: 훈민정음의 이해, 207-208쪽, 1988.

24) 강신항(1991), 『중보판 훈민정음 연구』,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0-11쪽.

25) 현운송, 이은재(1983), 『인간을 위한 디자인』 (서울: 미진사), 71쪽.

26) 민경우(1995), 『디자인의 이해』 (서울: 미진사), 239쪽.

27) 이근수(1995), 앞에 든 책, 11-12쪽.

28) 이돈주(1988), 앞에 든 글, "훈민정음의 해설", 11쪽.

29) 김재은(1994), 앞에 든 책, 55쪽.

30) 勝見 勝 외(1978), 박대순 옮김(1983): 현대 디자인 이론의 사상가들, 미진사, 156-160쪽.

31) 안상수(1992)는 이러한 기본 형태소를 4개의 최소 형태소(세로줄기, 가로줄기, 빗금, 동그라미)로 분류한 바 있다. (한글꼴의 원형태 연구, 제4회 한글 및 한국어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601-611쪽.)

32) 이체지의 경우도, '혀와 이의 모양을 본뜨기는 했으나 그 본을 달리 하였으므로 줄기를 더한 뜻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형태상으로는 역시 '가 획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 문호근(1993)은 이것을 역의 음양오행의 생성론과 《노자(老子)》의 유출사상에 기반을 둔 송학적인 이일분수의 사상 이론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이것은 곧 후한(後漢)의 허신(許愼)이 지은 《설문해지(說文解字)》 등의 이론을 본 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김석연(1993)은 이것을 촘스키(Noam Chomsky, 1965)의 '생성 이론' 곧 '유한한 방법/규칙을 반복적으로 씌으로써 무한한 것을 생성해 낼 수 있다는 이론'으로 해석하고 있다.[김석연(1993), 194-195쪽.]

34) 주역에서 역은 하나의 이름으로 세 가지 뜻을 가진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간역(簡易), 변역(變易), 불역(不易)을 말한다. 이 중 간역(또는 간이, 이간이라고도 한다.)이란, 알기 쉽고 좇기 쉽고 간단 명료하다는 것이며, 이것은 곧 복잡한 시작이라는 의미이다.

35) 김정수(1990), 한글의 역사와 미래, 열화당, 9쪽.